

22. 가마와 함께 시집온 씨앗 세 알, 연지동제의 멧쩍은 웃음을 닮은 정 할머니

무작정 찾아간 마을이었다. 따뜻한 겨울날 산책 겸 내려갔다가 하루 내내 보령 연지동제의 마을에 갇혔다.

구한 말 민비의 천박한 오행 사상의 나비효과가 엉뚱하게 미친 곳이다. 요즘도 대통령 부부와 모 법사와의 관계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지만, 구한 말 진령군이란 무당과 어프라져 퍼붓던 민비의 무속은 사실 낫 뜨거워 보기 힘들 정도였다. 사실 일제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어 국민의 분노를 제외하고는 보잘것없고 쓰잘머리 없는 행태뿐 아니던가.

잠시 이 마을이 민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자. 그래야 마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듯하다. 설화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꽤 설득력이 있다.

고종과 결혼을 한 민 씨는 비가 되어 힘없는 남편 고종의 정치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했다. 그때 한가지 사실에 주목했는데, 시아버지 흥선이 아버지 남연군 묘를 명당에 이장하여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에 민비도 아버지 민치록의 묘를 명당을 찾아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자그마치 네 번을 옮겨 다섯 번째 면례 하기에 이르니 사람들은 사천오장이라 비웃었다. 그 사천오장 중 마지막이 연지동제 마을의 맞은편 동네인 주포다. 진령군의 권고에 따라 주포에 묘를 쓰니 이곳은 풍수적으로 보면 안산이요, 수구의 역할을 하게 됐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장을 한 뒤 남편인 고종이 정권을 되찾고 민비도 권력을 크게 휘두르게 됐다. 이에 흥선은 또 누구인가. 민치록의 묘가 명당인 이유가 바로 남연군의 묘에서는 갖지 못한 물이 풍부한 것이 아닌가? 이 마을은 본래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형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연화부수의 또 다른 명당이었다. 바닷물이 들어와 내포를 이루어 어촌을 형성하고 있었다.

물이란 풍수에서 재물을 뜻하니 민비가 돈을 물 쓰듯 하며 권력을 부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자 흥선군의 촘촘한 대응 수는 바로 이 물을 없애는 것이다. 그냥 없애는 데는 명분이 없었으니, 마침내 흥선대원군이 찾은 명분은 조선 백성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척해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것이요, 그 적지가 바로 보령 앞뜰이라는 것이다. 그때 만들기 시작한 간척사업이 바로 이곳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이 마을 앞뜰이었다.

상전벽해라는 말은 곧 이 마을을 두고 한 말이다. 이곳은 조선 후기까지도 바다였고, 주로 바다에 나가 생활했다. 포구가 안쪽으로 밀고 들어와 모진 해풍의 피해도 적었지만, 바다로 나가는 길은 가까워 뱃사람들에게는 최적의 마을이었다. 이곳 뱃사람들은 사나운 바람에도 바다로 나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다가 없어진 것이다.

이 여파는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애꿎게도 피해는 고스란히 이 마을 연지동이 떠안는다. 연화부수의 마을에 물이 없어진 것이니 명당이 깨지게 된다. 그때 그것이 아쉬워 바다 한 쪽을 남기는 데 그 연못이 바로 지금의 연지동제이다. 어디 이뿐이었으랴. 이 마을 사람들의 삶터가 없어진다. 바로 어촌에서 농촌으로 바뀌었다. 물론 연지동제는 이때 긴요한 저수지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물고기 대신 씨앗을 구해야 했다. 대대로 이 마을에서는 씨앗이 귀하게 여겨온 이유였다. 사람들은 신을 갈아탔고 신은 신당을 갈아탔다. 용왕신은 없어지고 목신이 들어왔고 사람들은 용왕신에서 목신으로 갈아탔다. 이 마을에 가면 이때 갈아탄 신목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목신제를 지내고 있다. 갑자기 간척지가 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간척 마을이 사는 상황은 모든 것이 어색했다.

사람들은 옥답이 되어버린 눈에 모를 내는 것에 서툴렀고, 바다의 풍량은 모질게 버텼지만, 속절없이 불어오는 높새며, 삭풍이며 하는 된 바람이나 작달비며 장마철 개부심들은 도무지 배를 몰아치거나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보이지 않게 작물을 파고들고 있었다. 더구나 간척지에는 소금기가 날이 밝으면 작물을 타고 올라 추운 날 유리창에 성에 끼듯 했고, 더운 여름철이면 바싹 달라붙어 하얗게 몸대를 서로 비벼대고 있었다.

노만 짓던 사람이 팽이를 잡아야 했고, 닻을 내리는 대신 소에게 멩에를 씌워야 했으니 이 마음이야 오죽했으랴. 이때부터 이 신목은 마을 사람들의 농사에 관여하게 됐는데, 씨앗이 귀한 이 마을에는 목신제에 삶거나 찢 제물이 아니라 생 씨를 올린 이유였다.

이제 정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자.

정 할머니는 연지동제를 안고 사시는 분이다. 굳이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니 그냥 정 할머니라 부른다.

과년한 딸이 시집을 가야 하는데, 선을 보거나 중매를 서도 자꾸 깨지더니 어느 날 맘에 드는 청년을 만났다. 서글서글하고 멋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선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 아내나 친정 식구들에게 잘해줄 인상이어서 선뜻 결혼하는 데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하필 농사꾼이었는데, 그것도 간척지의 가난한 집안의 마을 청년이었다.

어설픈 농사꾼의 가난한 집안에 시집가는 것이 못내 안타까워 혼인을 말리던 친정어머니는 딸의 자신감에 하는 수 없이 혼인을 허락했지만, 시집가는 날에 씨 귀한 동네에 시집간다니 씨종자 서너 되를 시집가는 가마에 실려 보냈다.

하긴 부랴부랴 간척지에 농사짓다 보니 새로 들어오는 아내보다는 늘 폐농을 거듭해 씨종자 조차 구하지 못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씨종자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나, 부랴부랴 금지옥엽의 딸을 시집을 보내는 친정어머니가 제대로 된 폐백을 보내지 못하고 씨종자를 가마에 슬그머니 밀어 넣은 친정어머니나 가슴이 찢어지기는 매한가지였다.

그 마음이야 또한 오죽했으랴. 그때 친정어머니가 보낸 것이 서리태, 적팔, 참깨였다 한다. 콩은 단백질, 팥은 부적의 의미, 깨는 그들이 깨소금 냄새 피며 잘 살길 바라는 의미로 두었을 터. 모두가 어미의 마음이었다.

다행히 그녀가 미리 봤듯이 맘씨 좋은 남편은 장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 농사에 점차 익숙해지며 형편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물론 시집을 때 가지고 온 씨앗도 놓치지 않고 잘 지켜왔다. 자식들은 잘 커 버젓한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평평거리며 마을회관에서 자랑할 정도가 됐다.

그러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맘씨 좋은 남편도 훌쩍 곁을 떠나자, 팥은 이유도 모른 채 없어졌다. 팥을 잃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옆집 할머니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친정어머니가 시집을 때 주었다는 시금치를 얻어와 그 짝을 채워 텃밭에 심어 허허로운 마음을 달랬다. 한 번도 시금치 씨앗을 채종한 적이 없음에도 한 번도 씨앗을 잃은 적 없이 자가 번식하고 있어 지금도 그루같이처럼 겨울을 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수집을 나갔을 때는 한 겨울이었다. 이상하게 마을은 텅 비어 있었고, 가끔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근래에 이사 온 사람들이었다. 이곳에서 어부를 하던 본토박이는 거의 없었다. 이곳이 바다였다는 마을의 내력을 아는 사람도 적었고, 농사를 짓는다 해도 대부분이 해방 후에 들어 온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수집을 포기할까 생각하는데, 정말 난데없이 멀리 텃밭에 푸릇푸릇한 것이 눈에 띄어 달려가 보니 한겨울에 시금치가 언 땅을 겨워하지 않고 짝을 세우고 있었다. 토종이다.

반갑다. 시금치!

그래서 무턱대고 들어간 곳이었다. 자식들에게 욕될 수 있으니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겠노라며 광에 두었던 콩과 참깨를 들고나왔다.

“다 섞었어!”

흔네듯 툭툭거린다. 토종 씨앗 박물관을 한다니가 변명 삼아 자신을 탓하는 것이다. 서리태라 했는데 그 안에는 많은 콩이 섞여 있었다. 아마 마을에서 심던 토종 콩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을 것이었다. 그래도 깜냥껏 자신만만하게 반격하셨다.

“필요하면 골라 써!”

다른 콩과 섞여 있어 자신은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나가고 없으니 굳이 가려심을 이유가 없단다. 그러니 필요하면 우리보고 가서 골라 심으라신다. 그 말이 왜 그리 힘이 없어 보이던지 그럼요 하면서 넙죽 받았다.

농사지을 자식이 없으니 놔두고는 있으나 친정어머니의 마음만 남은 콩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을 보니 상전벽해도 하루아침이 아니라 연지동제나 섞인 콩이나마 항상 뒤따라 남아 있는 듯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동안 생 씨를 제물로 받지 못한 불쌍한 당산목을 찾아보고 연지동제를 한 바퀴 돌아 마을을 빠져나왔다. 지금은 수리 시설이 잘돼 있어 별로 큰 쓸모가 없어 멧쩍은 웃음만 짓고 있던 할머니를 닮았지만, 친정어머니의 토종 씨앗이 사라지는 아쉬움은 정 할머니나 연지동제나 매한가지다.

정 할머니의 토종 씨앗은 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 남긴 연지동제의 연못처럼 할머니의 고집 속에 남아 있을 뿐이다.